

구마 겐고 뮤지엄건축에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 공간특성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Critical Regionalism in Kengo Kuma's Museum Architecture

주 저 자 : 이승연 (Lee, Seungyeon)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김동헌 (Kim, Donghun)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교 신 저 자 : 윤성호 (Yoon, Sungho)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부교수
sy235@kookmin.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2.286>

접수일 2026. 05. 18. / 심사완료일 2026. 05. 29.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Contemporary architecture tends to weaken regional identity and placeness as universal styles spread through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ve structure of placeness, sensibility, and tectonics in Kengo Kuma's architec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using critical regionalism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findings show that Kuma's architecture reconstructs placeness through a spatial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context, sensory experience, and tectonic structure, thereby proposing an analytical framework for reinterpreting regionalit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Keyword

Critical Regionalism(비판적 지역주의), Weak Architecture(약한 건축), Kengo Kuma(구마 겐고)

요약

현대 건축은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편적 양식의 확산으로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판적 지역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아 구마 겐고 건축의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 형성 구조를 문헌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소적 차원에서는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맥락 구조가, 감각적 차원에서는 빛과 재료에 의한 경험 구조가, 구조적 차원에서는 재료와 결구를 통한 구축 구조가 나타났다. 이는 구마 겐고의 건축이 환경, 감각, 구조가 결합된 공간 조직 속에서 장소성을 재구성함을 보여주며,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현대 건축의 지역성 재해석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비판적 지역주의
- 2-2. 구마 겐고

3.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의 구마 겐고 공간표현 특성

- 3-1. 장소 맥락적 차원
- 3-2. 감각 경험적 차원

3-3. 구조적 차원

3-4. 소결

4. 사례 연구

- 4-1. 사례 범위 및 방법
- 4-2. 사례분석
- 4-3. 소결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건축은 세계화와 기술 중심의 발전 속에서 보편적 양식이 확산되며,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건축을 주변 환경과 분리된 독립적 객체로 인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적 맥락과 감각적 경험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케네스 프램튼은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¹⁾를 제시하며, 근대 건축의 보편성을 수용하되 지역의 지형, 기후, 재료, 빛 등 물리적·감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축과 장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²⁾. 특히 그의 이론은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의 측면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핵심 분석 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한편, 구마 겐고는 ‘약한건축(Weak Architecture)’³⁾ 개념을 통해 기존의 강한 조형 중심 건축을 비판하고, 건축을 자연과 환경 속에 스며드는 존재로 재정의하였다. 특히 그의 초기 작품들은 재료의 경량화와 자연재료의 활용, 경계의 흐림을 통해 건축과 주변 맥락 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하며, 감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성의 구현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의 형식적 재현이 아닌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지역성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역주의의 구체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 이론을 분석 틀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마 겐고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사상인 ‘약한 건축’이 어떻게 지역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대 건축에서 지역성과 환경적 관계가 구현되는 새로운 방향성과 그 건축적 의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구마 겐고 건축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구현 방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그의 건축사상인 ‘약한 건축(Weak Architecture)’⁴⁾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하며, 건축 전문 매체 및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프로젝트로 한정한다. 이 가운데 자연재료의 활용과 경계의 흐림, 주변 환경과의 관계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 전후 초기 건축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 이론을 토대로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⁵⁾의 세 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를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비판적 지역주의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구마 겐고의 초기 건축 중 뮤지엄 사례로 한정하며, 그의 건축사상인 ‘약한 건축’이 형성되는 시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각 사례에 나타나는 건축과 자연환경의 관계, 재료와 빛을 통한 감각적 공간 경험, 그리고 구조적 구성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구마 겐고 초기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약한 건축’의 특성이 비판적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규명하고, 현대 건축에서 지역성과 환경적 관계를 재해석하는 건축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판적 지역주의

2-1-1.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의 관계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는 모두 근대 건축의 보편성과 획일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지만,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식과 이론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전통 건축의 형태와 공간구성을 적극적으로

1) Frampton, Kenneth,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Seattle, 1983, pp.16-30

2) 김승범·김광현,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8, Vol.27 No.8, pp.220-223

3) 구마 겐고, 『나의 모든 일』, 서울: 나무생각, 2023.

4) Kuma Kengo, 『Architecture of Defeat』, London: Routledge, 2019.

5) 노영호,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p.28-33

로 수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건축을 지역적 산물로 이해하고 장소성과 환경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전통 요소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형식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을 보이며 과거 지향적 한계를 드러낸다.⁶⁾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주의 건축은 전통의 계승과 환경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나, 표피적 적용과 형식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에 비해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는 케네스 프램튼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으로, 모더니즘 건축의 기술적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비판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바탕으로 장소의 물리적·감각적 조건을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비판적 지역주의는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의 측면에서 건축을 이해하며, 건축을 시각적 대상이 아닌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와 차별화된다. 홍세미(2014)가 정리한 두 개념의 차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주의와 비판적 지역주의 비교(홍세미, 2013)

구분	지역주의	비판적 지역주의
모더니즘 견해	모더니즘 비판	모더니즘 기본정신 수용
사용 재료 범위	제한적 재료의 사용 (천연 재료의 선호)	지역적 재료의 범위와 의미를 재인식 및 활용
표현 방식	전통 형태의 직접, 과장된 형태로 도입	재해석된 전통, 풍토 형태의 도입
자연 관점	배경으로서의 자연	환경의 적극적 도입
감각 경험	시각적 감각에 의존	시각, 촉각, 청각적 감각

결과적으로 지역주의가 전통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재현적 접근’이라면, 비판적 지역주의는 현대성과 지역성을 통합하는 ‘해석적 접근’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전자가 형태 중심의 지역성 구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는 환경, 재료, 감각을 포함한 총체적 경험을 통해 지역성을 재구성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건축에서 지역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후 건축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6) 이현주,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9, pp.18

2-1-2. 비판적 지역주의의 개념 및 특성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개념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 특성 키워드를 <표 2>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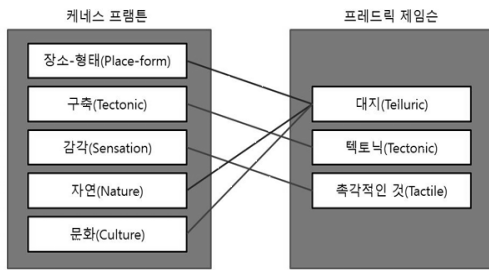
[표 2] 비판적 지역주의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요소	특성
홍세미 (2013)	비판적 지역주의는 장소·구조·감각 요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의 가능성 제시	모더니즘과 전통의 결합, 기하학적 구성, 장소성 강조	장소성, 기하학, 장소성, 감각성, 구조성
최민지 (2014)	전통 재료와 현대 재료의 결합을 통해 지역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음	전통의 재해석, 자연과의 관계, 공간 경험	현대적 재해석, 자연과의 관계, 공간 경험
박미라 (2021)	전통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되는 건축적 개념 작용	장소성·구축성·촉각성 분석틀 정립	장소성·구축성·촉각성 분석틀 정립
노영호 (2023)	지역성은 장소적 맥락과 재료의 재해석을 통해 건축에서 효과적 구현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장종규 외 (2023)	비판적 지역주의는 장소성, 구축성, 촉각성을 통해 건축의 표현 특성을 체계적 설명	장소성 중심, 재료 재해석, 환경과의 통합	장소성 중심, 재료 재해석, 환경과의 통합

케네스 프램튼이 제시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개념은 장소-형태(place-form), 구축(tectonic), 감각(sensation), 자연(nature), 문화(culture) 등의 요소로 설명될 수 있으며⁷⁾, 이는 건축이 대지와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후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를 대지(telluric), 텍토닉(tectonic), 촉각적 요소(tactile)의 세 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였다.⁸⁾

7) Frampton, kenneth, "Introduction: The work of Architecture in the Age of Commodification," commodification and Spectacle in Architecture, 1st 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p. ix-xviii

8) 박미라, 한국건축공간에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 표현특성 연구 : 안도 타다오 작품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25.



〈그림 1〉 케네스 프레임과 프레드릭 제임슨의 표현 특성 연결

이 중 대지는 건축과 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형, 기후, 빛과 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장소성'으로 확장하여 해석한다. 텍토닉은 단순한 구조의 노출을 넘어 건축을 구성하는 기술적·구조적 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구축성'으로 정의되며, 촉각적 요소는 시각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촉각, 청각 등을 포함한 공간 경험을 의미하는 '감각성'으로 이해된다.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주요 특성은 장소성, 구축성, 감각성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출된 핵심 개념이다⁹⁾.

첫째, 장소성은 건축이 위치한 대지의 지형, 기후,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건축을 독립된 객체가 아닌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둘째, 구축성은 재료와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건축의 물리적 실체성과 구성 원리를 의미하며, 지역 재료의 활용과 구조적 표현을 통해 장소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셋째, 감각성은 빛, 질감, 온도,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 경험을 의미하며, 인간의 신체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경험을 강조한다¹⁰⁾.

둘째, 구축성은 재료와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건축의 물리적 실체성과 구성 원리를 의미하며, 지역 재료의 활용과 구조적 표현을 통해 장소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구축성은 단순한 구조의 노출을 넘어 재료의 결구 방식과 구조적 질서, 시공의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건축의 물질성과 공간의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재료와 구조가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건축의 장소적 맥락과 기술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며, 사용자가 건축의 구축 원리를 감각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감각성은 빛, 질감, 온도,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 경험을 의미하며, 인간의 신체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건축 경험을 강조한다. 특히 감각성은 시각 중심의 공간 인식을 넘어 촉각과 청각, 분위기와 신체 감각을 포함하는 다층적 경험으로 이해되며, 사용자는 공간 속에서 빛과 그림자의 변화, 재료의 질감과 공기의 흐름 등을 통해 장소의 분위기와 공간의 깊이를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감각성은 건축을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 경험 속에서 체험되는 환경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은 장소와 환경, 재료와 구조, 인간의 감각 경험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형성되는 건축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소성은 건축이 자연환경과 지역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특성을 의미하며, 구축성은 재료와 구조, 결구 방식 등을 통해 건축의 물질성과 구축 원리를 드러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감각성은 빛과 질감, 온도와 소리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공간 경험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이해된다.

즉,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은 단순히 지역적 형태나 전통을 재현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장소와 환경, 인간 경험과 구축 방식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는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건축을 독립된 시각적 객체가 아니라, 장소성과 감각 경험, 구축적 질서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적 환경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판적 지역주의는 보편화된 현대 건축에 대응하여 지역성과 인간 중심의 공간 경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축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2. 구마 겐고

2-2-1. 일본의 근현대건축 동향

1954년에 태어난 건축가 구마 겐고는 그의 구분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건축계의 제 4세대에 해당한다. 일본 근현대 건축은 서구 근대 건축의 영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건축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전후 일본 건축

9) 박미라. ibid., pp.28-36.

10) 박다혜·이영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10, Vol.15 No.5, pp.569-572.

가들은 패전 이후 국가 재건과 도시 복구라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공공 인프라 중심의 건축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구의 건축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일본 고유의 공간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3] 일본 근현대 건축가의 계보 (구본비, 2019, 재구성)

세대	특징	건축가
1	· 1960년대 고도성장기와 메타볼리즘 영향 · 기술 중심의 모더니즘 건축 전개 · 전통 공간개념의 현대적 재해석	단게겐조, 마에카와 구니오
2	· 기술문명 비판과 환경·도시 문제 부상 ·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 수용 · 미국 도시문화와 유럽 역사주의의 영향 병존	마키 후미히코, 키쿠타게 기요노리, 이소자키 아라타, 구로카와 기쇼
3	· 소비사회와 상업문화의 확산 · 노출콘크리트 등 재료의 물성 강조 · 상업적 아이덴티티와 감성적 공간 연출	안도다다오, 이토 도요, 하세가와 이쓰코
4	·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역 중심 건축 확대 · 소규모 프로젝트와 맥락 중심 설계 · 재료의 감성·환경성·경량성 강조	쿠마 겐고, 세지마 카노요, 나시자와 류에

1960년대에 등장한 메타볼리즘(Metabolism)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건축 운동으로, 도시와 건축을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변화와 확장을 전제로 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 건축계 내부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기적 건축 사이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전통 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일본 근현대 건축은 서구의 보편적 건축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전통과 자연, 공간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적인 건축적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이후 지역성과 감각성을 중시하는 건축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¹¹⁾.

11) 구본비, 쿠마 겐고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재료물성의 감각성 표현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p.44-51.

2-2-2. 쿠마 겐고의 건축배경

쿠마 겐고는 1980년대 활동한 일본의 4세대 건축가로서 그간의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그는 일본에서의 건축 흐름의 변화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를 겪었으며,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서 나타나는 현대건축의 문제들을 철학적 견지에서 직시하여 자신의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쿠마 겐고는 건축을 단순한 조형 행위가 아닌 환경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실천으로 바라보며, 근대건축이 지닌 폐쇄성과 시각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였다.¹²⁾ 그는 내부와 외부를 단절시키는 ‘인클로저(enclosure)’ 구조를 현대건축의 한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과 환경 속에 유연하게 스며드는 ‘약한 건축(Weak Architecture)’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목재와 돌, 대나무 등 자연재료의 촉각적 물성과 감각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소성과 인간의 신체 경험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건축은 재료와 빛, 경계와 환경의 관계 속에서 공간 경험을 형성하며, 비판적 지역주의의 장소성·감각성·구축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2-2-3. 쿠마 겐고의 건축사상

쿠마 겐고의 건축사상은 근대 건축의 물질 중심성과 기념비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며, 자연과 환경,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데 있다¹³⁾. 그는 건축을 독립적인 ‘강한 오브제’가 아닌 주변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약한 건축(Weak Architecture)’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¹⁴⁾

이러한 사상은 건축의 덩어리성을 해체하고 자연재료와 빛, 공기 등을 통해 공간을 비물질화하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재료의 입자화(그림2)’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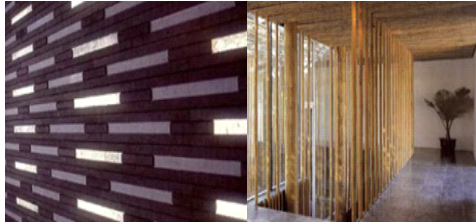
즉, 쿠마 겐고에게 재료의 입자화는 건축의 물질적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장소와 환경, 인간의 감각 경험을 매개하는 중요한 건축적 방법으로 이해될

12) 김윤정·박찬일, 쿠마 겐고의 역동적 비평성으로서의 건축적 사고구조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3.10, Vol.22 No.5, pp.114-125.

13) 민경훈·윤재은, 쿠마 겐고 건축의 구조 해석에 방법적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0.8, Vol.15 No.5, pp.25-36.

14) 장용순, 쿠마 겐고와 소우 후지모토의 ‘약한 건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6), 2014.6, Vol.30 No.6, pp.117-125.

수 있다.



〈그림 2〉 (좌) StoneMuseum, Nasu, 2000,
(우) Great (Bamboo) Wall Beijing, 2002

또한 재료의 물성과 감각적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건축을 시각 중심이 아닌 신체적 체험 중심의 환경으로 확장한다. 구마 겐고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들이 이러한 입자들이며, 입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들이 순간적으로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상태 그 자체가 자연이라고 보았다¹⁵⁾.

구마 겐고의 건축 상을 요약하면 <표 4>와 같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성을 회복하고, 재료와 감각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표 4] 구마 겐고의 건축사상

구분	내용
비판적 지역주의	지역의 맥락과 환경을 기반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장소성을 구현
약한 건축	건축의 물질성과 기념비성을 약화시키고 자연 및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재료의 분절화	재료를 분절·세분화하여 건축의 물성을 해체하고 빛, 공기, 감각적 경험을 유도

2-2-4. 구마 겐고 건축의 공간적 특징

구마 겐고의 건축은 그의 저서 『Anti-Object, 2007』에서 나타나는 ‘관계성’, ‘흐름’, ‘매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건축을 고정된 형태나 물질적 실체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시간과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 반복적 병치는

15) 정영석, 장소의 맥락을 통해 구현된 쿠마 겐고 건축의 특징과 장소성 형성과정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32-38.

단순화된 요소들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건축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도적인 연관성을 피하여 중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나타난다¹⁶⁾.

(1) 약한 건축

약한 건축은 단순히 물질성을 줄이는 개념을 넘어 ‘경계의 재구성’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는 건축의 본질을 내부와 외부, 자연과 인공, 구조와 비구조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데서 찾는다. 이는 건축을 명확하게 구획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중첩되고 전이되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간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상태를 갖게 된다.¹⁷⁾

(2) 건축 재료의 분절화

재료의 분절화는 단순한 물리적 분해가 아니라 ‘지각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재료를 세분화함으로써 하나의 중심적 시각 경험을 해체하고, 사용자가 공간을 다층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Anti-Object, 2008』에서 제시되는 ‘분산된 구조’ 개념은 건축을 하나의 중심적 질서가 아닌 복수의 요소가 결합된 상태로 이해하게 하며, 이는 시각적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¹⁸⁾

(3) 건축의 비판적 지역주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단순한 장소 반응을 넘어 ‘환경과의 상호작용 체계’로 확장된다. 그는 건축을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기후, 빛, 바람, 인간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장(field)으로 인식한다. 건축에서 강조되는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건축을 구성하는 능동적 요소로 작용하며, 건축은 이러한 요소들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즉, 지역성은 형태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3.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의 구마 겐고 공간 표현 특성

16) 최수만·김지은, 쿠마 겐고의 건축 사상으로 본 ‘자연스러운 건축’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Vol.16 No.1, pp.671-683.

17) 김성철·정용현·김성욱·전유창, ‘약한 건축’의 개념을 활용한 장소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4, Vol.41 No.1, pp.66-69.

18) 쿠마 겐고(2010), 전제서, p.55 -모나드 이론

3-1. 장소 맥락적 차원

장소적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을 특정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축적 태도를 의미한다. 케네스 프램튼이 제시한 비판적 지역주의는 보편화된 건축 양식에 대응하여, 지형, 기후, 빛과 같은 물리적 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하며, 건축을 장소와 분리된 객체가 아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마 겐고의 건축은 장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V&A Dundee, Scotland, 2018

그의 건축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건축은 지형과 기후, 빛과 같은 환경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건축의 배치는 대지의 조건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연 요소가 내부로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내·외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그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에서도 비판적 지역주의적 태도를 드러낸다. 전통 건축 요소를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지역의 생활양식과 공간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장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건축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을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며 그의 장소적 건축사상에 명확히 드러난다.

[표 5] 구마 겐고의 장소적 건축사상

구분	개념	특징	공간 표현
자연	환경과의 관계	건축과 자연의 통합	지형 순응, 빛, 바람 유입
사회·문화	맥락의 재해석	전통의 현대적 변환	형태 재구성, 도시 맥락 대응

3-2. 감각 경험적 차원

감각적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을 시각 중심의 형태가 아닌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케네스 프램튼은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촉각성(tactility)과 경험성을 강조하며, 건축이 빛, 온도, 재료, 소리 등 다양한 감각 요소를 통해 인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건축을 단순한 시각적 대상이 아닌, 몸으로 경험되는 환경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마 겐고의 건축은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건축을 고정된 형태로 인식하기보다 빛, 공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의 장’으로 이해하며, 이를 통해 공간의 유동성과 연속성을 형성한다. 특히 자연광의 유입과 변화는 공간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며, 사용자는 이동과 체류를 통해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또한 재료에 대한 그의 접근은 감각적 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는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기보다, 질감과 투과성, 반사성을 통해 빛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재료 사용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 공간적 경험을 동시에 유도하며, 건축을 보다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귀결한다.

[표 6] 구마 겐고의 감각적 건축사상

구분	개념	특징	공간 표현
체험	신체적 경험	시간에 따른 공간 변화	빛, 동선, 연속성
재료	감각적 매개	물성보다 감각 강조	질감, 투과, 반사

요점은 빛, 재료,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는 건축을 시각적 대상이 아닌 신체적 체험의 연속으로 전환시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3-3. 구조적 차원

구조적 비판적 지역주의는 건축의 구조와 재료를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닌 공간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역성과 감각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접근이다. 케네스 프램튼은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구축성(tectonic)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건축은 재료와 구조의 표현을 통해 장소성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마 겐고의 건축은 구조를 공간 경험의 일부로 확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는 전통 목구조의 결합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구조 자체가 공간을 형성하도록 하며, 구조를 숨기기보다 드러냄으로써 건축의 구축적 특성을 강조한다. 특히 반복되는 구조 시스템과 세분화된 디테일은 건축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닌 다층적 구조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그는 재료를 하나의 물질적 덩어리로 사용하는 대신, 이를 작은 단위로 분절하고 반복하는 '재료의 분절화' 방식을 통해 건축의 물성을 해체한다. 이러한 방식은 구조를 경량화하고, 빛과 공기, 시선이 통과하는 투과적 공간을 형성하며, 건축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간의 확장성을 유도한다. 이는 그의 저서 『Architecture of Defeat, 2019』에서 제시된 '건축의 해체'의 개념과도 연결되며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표 7] 구마 겐고의 구조적 건축사상

구분	개념	특징	공간표현
기술	구축적 표현	구조의 가시화	반복구조, 디테일
비 물질	물성 해체	가벼운 건축	분절, 투명성

3-4. 소결

본 장에서는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구마 겐고의 건축에 나타나는 표현 특성을 장소적, 감각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건축은 자연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장소적 특성, 빛과 재료를 통해 신체적 경험을 유도하는 감각적 특성, 그리고 구조와 재료의 분절을 통해 물질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특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소적 측면에서 그의 건축은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건축을 환경과 연속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감각적 측면에서는 빛, 재료, 동선 등을 통해 시각을 넘어선 신체적 경험을 유도하며, 공간을 시간과 흐름 속에서 인지하도록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재료의 분절과 반복, 그리고 구축 방식의 노출을 통해 건축의 덩어리성을 해체하고, 경량화된 공간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8] 구마 겐고 건축의 공간적 특징

구분	특징	공간표현
장소적 특징	자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건축을 구성 지형 순응, 자연 유입, 경계 흐림
	사회·문화	지역 맥락과 전통의 현대적 반영 맥락 반영, 전통 재해석
감각적 특징	체험	감각적 경험 중심의 공간 형성 빛, 동선, 공간 전이
	재료	재료를 통한 감각적 표현 자연재료, 질감, 투과성
구조적 특징	기술	구조와 기술을 통한 공간 구성 반복 구조, 디테일
	비물질	물질성을 약화한 공간 표현 분절, 투명성, 경계 소거

이와 같은 특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며, 건축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닌 환경과 관계 맺는 유동적 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다. 즉, 구마 겐고의 건축은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을 통합하여 자연과 인간, 재료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형성하며, 이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현대적 구현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사례 연구

4-1. 사례 연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구마 겐고의 뮤지엄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재료·구조가 결합된 대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사례는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빛, 동선, 재료,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간 경험을 형성하는 건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구마 겐고 건축이 환경과 맥락, 감각적 경험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특히 뮤지엄 건축은 전시 기능뿐 아니라 관람자의 이동, 시선, 체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이므로, 공간적 특성과 감각적 경험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마 겐고의 뮤지엄 건축은 자연환경과의 관계, 재료의 표현 방식, 구조적 구성 원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사례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이후 완공된 작품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그의 초기 실험적 건축에서부터 구조 및 재료 중심의 건축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포함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기 이후 구마 겐고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 설정, 재료의 감각적 활용, 구조적 표현 방식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은 Water/Glass Gallery(1995), 히로시게 미술관(2000), 네즈 뮤지엄(2009), GC Prostho Museum(2010), 규슈 게이분칸 뮤지엄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사례는 각각 수공간과 유리, 목재 루버, 정원과 처마, 목재 결구, 지역 환경과 구조적 표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마 겐고의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의미를 가진다.

반면 소규모 전시공간, 단순 상업시설, 계획 단계 프로젝트, 자료 접근이 제한된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례 선정은 건축적 완성도, 공간 경험의 명확성, 자료의 신뢰성, 그리고 그의 건축의 특성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개별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구마 겐고 뮤지엄 건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9】 사례 대상지 개요

NO.	명칭	연도
1	Water/Glass Gallery	1995
2	Hiroshige Museum of Art	2000
3	Nezu Museum	2009
4	GC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2010
5	Kyushu Geibun Kan Museum	2013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소·맥락적 차원, 감각·경험적 차원, 구조적 차원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각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구마 겐고 뮤지엄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4-2. 사례 분석

〈표 10〉 Water/Glass Gallery

NO.1 Water/Glass Gallery			
위치	Shizuoka, Japan	설립연도	1995
이미지			
차원	요소	특성	내용
장소·맥락적 차원	자연	지형·환경 통합성	대지 조건에 순응하는 배치를 통해 건축은 지형과 연속적 형성, 물과 빛이 공간 구성 요소로 통합
		경계의 비결정성	유리와 수면을 통한 시각적 연속성이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약화, 건축과 자연의 경계를 모호
	사회문화	맥락의 반응성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이 건축이 주변 맥락에 반응, 의미를 형성하는 특성을 나타냄
		전통의 동시대적 재구성	자연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형태가 아닌 구성 원리로 적용
감각·경험적 차원	체험	빛의 공간적 조절	자연광은 물과 유리를 통해 반사투과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 경험 형성
		공간의 점진적 전이	외부와 내부는 모호, 점진적으로 연결, 연속적 공간 흐름 인지
	재료	재료의 촉각적 물성	유리와 물은 매끄럽고 반사적인 표면을 통해 시각적 감각을 강화, 공간 인식 형성
		감각적 재료성	재료 빛과 결합하여 투과성과 반사성을 동시 연상, 통합된 감각적 환경 형성
구조적 차원	기술	반복적 구조 시스템	구조는 단순한 체계로 구성, 공간 형태보다 환경과의 관계를 유지
		구축 디테일의 표현	최소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건축의 존재감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표현
	비물질	재료의 분절화	재료는 요소 단위로 분절되어 구성되며 공간의 경량화와 유동성을 유도
		투과적 경계 형성	유리와 물의 조합은 시각적 투과성을 형성,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해체된 상태로 인식
종합 분석	지형·환경 통합성과 경계의 비결정성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 빛의 공간적 조절과 감각적 재료성을 통해 경험을 확장, 재료의 분절화와 투과적 경계를 통해 건축의 물질성을 약화시키는 특징이 나타난다.		

〈표 11〉 Hiroshige Museum of Art

NO.2 Hiroshige Museum of Art			
위치	Tochigi, Japan	설립연도	2000
이미지			
장소 맥락적 차원	자연	지형·환경 통합	외피 시스템을 통해 외부 환경을 조절, 자연요소를 선택적으로 내부에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환경과 관계를 형성
		경계의 비결정성	루버 구조는 시선과 빛을 부분적으로 투과,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중첩된 상태로 인식
	사회 문화	맥락의 반응성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제한적으로 프레임, 장소를 해석하는 방식에 개입
		전통의 동시대적 재구성	히로시게의 풍경화가 지닌 '선택된 시선' 공간적으로 구현, 전통을 재현이 아닌 인식 구조로 전환
감각 경험적 차원	체험	빛의 공간적 조절	빛은 루버를 통과하며 분절된 형태로 내부에 투영, 일정하지 않은 밝기 분포를 통해 공간의 리듬을 형성
		공간의 점진적 전이	공간은 연속되기보다 단계적으로 분절되며, 사용자는 각 구간을 거치며 점진적인 인지 변화를 경험
	재료	재료의 촉각적 물성	목재는 자연스러운 질감과 밀도를 통해 시각뿐 아니라 촉각적 인식을 유도하며 공간의 분위기를 규정
		감각적 재료성	루버는 빛과 결합, 그림자와 투과의 층위를 형성하며, 재료가 감각적 경험을 매개하는 요소로 작용
구조적 차원	기술	반복적 구조 시스템	목재 루버는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입면과 공간을 동시에 조직하는 구조 시스템으로 작용
		구축 디테일의 표현	루버의 결합 방식과 구성은 구조적 디테일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건축의 구축적 특성을 표현
	비물질	재료의 분절화	건축은 연속된 덩어리 대신 세분화된 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형태의 단일성을 해체
		투과적 경계 형성	루버 사이의 틈은 시각적 투과를 유도하며, 경계를 고정된 선이 아닌 변화하는 상태로 인식
종합 분석	자연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절된 방식으로 내부에 도입, 빛과 재료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구성, 반복 구조를 통해 공간을 분절함으로써 건축의 물질성을 완화하는 특징. 이는 전통적 경관 인식을 공간적 장치로 전환하여 건축과 환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으로 평가된다.		

〈표 12〉 Nezu Museum of Art

NO.3 Hiroshige Museum of Art			
위치	Tokyo, Japan	설립연도	2009
이미지			
장소 맥락적 차원	자연	지형·환경 통합	대지의 흐름에 순응 배치, 정원과 연속된 공간 구성을 통해 자연환경이 내부 공간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경계의 비결정성	깊은 처마와 중간 영역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완화, 공간을 명확히 나누기보다 점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인식
	사회 문화	맥락의 반응성	도시 맥락 속에서도 정원과 건축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재조직
		전통의 동시대적 재구성	전통 건축의 처마와 공간 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적 장소 경험을 현대 도시 환경 속에 재현
감각 경험적 차원	체험	빛의 공간적 조절	빛은 처마와 입면을 따라 부드럽게 확산, 공간 전체에 균질하면서 깊이 있는 밝기 형성
		공간의 점진적 전이	진입에서 내부, 그리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공간 경험을 인지
	재료	재료의 촉각적 물성	목재는 부드러운 표면과 따뜻한 질감을 통해 공간의 안정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감각적 재료성	재료를 빛과 결합하여 반사보다는 확산된 빛의 층위를 형성하며, 공간 전반에 통합된 감각적 경험을 제공
구조적 차원	기술	반복적 구조 시스템	처마 구조와 목재 구성은 반복적 체계를 이루며, 공간 전체를 일관된 질서로 조직
		구축 디테일의 표현	구조 요소는 과도하게 드러나기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되며, 공간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역할
	비물질	재료의 분절화	구조는 세분화된 요소로 구성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형태를 유지하며, 분절과 통합이 동시에 나타남
		투과적 경계 형성	처마와 개방된 입면은 시선과 빛의 흐름을 허용하며,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
종합 분석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연속된 환경으로 통합하고, 빛과 재료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며, 구조를 통해 공간 질서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건축을 개별적 객체가 아닌 환경과 일체화된 체계로 전환시키는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으로 평가 가능하다.		

〈표 13〉 GC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NO.4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위치	Aichi, Japan	설립연도	2010
이미지			
장소 맥락적 차원	자연	요소	지형·환경·통합성
		특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속에서 구조 사이의 틈을 통해 빛과 공기가 유입되며, 자연요소가 간접적으로 내부 공간에 통합
	사회문화	요소	경계의 비결정성
		특성	구조체의 반복과 개방된 틈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공간을 투과적이고 확장된 상태로 인식
감각 경험적 차원	자연	요소	맥락의 반응성
		특성	건축은 지역의 환경과 맥락에 대응하며, 형태보다는 구조 방식을 통해 장소와 관계를 형성
	사회문화	요소	전통의 동시대적 재구성
		특성	일본 전통 목구조의 결구 방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전통을 구축 원리로 재해석
구조적 차원	기술	요소	빛의 공간적 조절
		특성	빛은 루버를 통과하며 분절된 형태로 내부에 투영, 일정하지 않은 밝기 분포를 통해 공간의 리듬을 형성
	비물질	요소	공간의 점진적 전이
		특성	공간은 연속되되보다 구조에 의해 분절, 사용자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는 공간 경험을 인지
종합 분석	기술	요소	재료의 축적적 물성
		특성	목재는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을 통해 시각뿐 아니라 촉각적 인식을 유도하며 공간의 밀도를 형성
	비물질	요소	감각적 재료성
		특성	재료는 구조와 결합하여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형성하며, 감각적 경험을 공간 전체로 확장
종합 분석	기술	요소	반복적 구조 시스템
		특성	목재 결구 구조는 반복적으로 확장되며, 구조 자체가 공간을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
	비물질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결구 방식은 구조적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며, 디테일 자체가 건축의 표현 요소로 강조
종합 분석	기술	요소	재료의 분절화
		특성	구조는 작은 단위의 요소로 분절되어 구성되며, 건축의 덩어리성을 해체하고 공간의 경량화를 유도
	비물질	요소	투과적 경계 형성
		특성	구조 사이의 틈은 빛과 시선의 흐름을 허용하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인식
종합 분석	기술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구조는 작은 단위의 요소로 분절되어 구성되며, 건축의 덩어리성을 해체하고 공간의 경량화를 유도
	비물질	요소	투과적 경계 형성
		특성	구조 사이의 틈은 빛과 시선의 흐름을 허용하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인식
종합 분석	기술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결구 방식은 구조적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며, 디테일 자체가 건축의 표현 요소로 강조
	비물질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결구 방식은 구조적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며, 디테일 자체가 건축의 표현 요소로 강조

〈표 14〉 Kyushu Geibun Kan Museum

NO.5 Kyushu Geibun Kan Museum			
위치	Fukuoka, Japan	설립연도	2012, 2014
이미지			
장소 맥락적 차원	자연	요소	지형·환경·통합성
		특성	대지의 흐름과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배치를 통해 형성, 외부 공간과의 연속성을 위주로 자연요소가 내부와 유기적 연결
	사회문화	요소	경계의 비결정성
		특성	입면 구성과 개방된 공간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완화시키며, 공간을 환경과 연속된 상태로 인식
감각 경험적 차원	자연	요소	맥락의 반응성
		특성	건축은 지역의 환경과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주변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공간적 의미를 형성
	사회문화	요소	전통의 동시대적 재구성
		특성	지역 재료와 구축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요소를 형태가 아닌 물질과 구조의 차원에서 재구성
구조적 차원	기술	요소	빛의 공간적 조절
		특성	자연광은 재료와 구조를 통해 분산되고 확산되며, 공간 전체에 균질하면서도 부드러운 밝기를 형성
	비물질	요소	공간의 점진적 전이
		특성	외부 공간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공간 경험을 인지
종합 분석	기술	요소	재료의 축적적 물성
		특성	지역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거칠고 자연스러운 질감을 통해 촉각적 인식을 강화하며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
	비물질	요소	감각적 재료성
		특성	재료는 빛과 결합하여 색채와 질감의 변화를 형성하며, 공간 전반에 통합된 감각적 경험을 제공
종합 분석	기술	요소	반복적 구조 시스템
		특성	구조는 재료의 특성에 기반하여 반복적으로 조직되며, 공간 형성과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를 구축
	비물질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재료의 결합 방식과 구조 디테일은 건축의 구조적 논리를 드러내며 공간의 완성도를 형성
종합 분석	기술	요소	재료의 분절화
		특성	재료는 단위 요소로 분절되어 구성되며, 건축의 덩어리성을 완화하고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
	비물질	요소	투과적 경계 형성
		특성	재료 사이의 틈과 구조적 구성은 빛과 시선의 흐름을 허용하며, 내부와 외부를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
종합 분석	기술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결구 방식은 구조적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며, 디테일 자체가 건축의 표현 요소로 강조
	비물질	요소	구축 디테일의 표현
		특성	결구 방식은 구조적 논리를 명확히 드러내며, 디테일 자체가 건축의 표현 요소로 강조

4-3. 소결

본 장에서는 5개의 사례를 종합하여 구마 겐고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공간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들은 대지 조건과 재료, 구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자연환경과 지역 맥락을 반영하고, 빛과 재료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며, 구조와 결구 방식을 통해 구축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 맥락적 차원에서는 수면, 유리, 루버, 정원, 처마, 외부 공간 등을 통해 자연과 건축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감각 경험적 차원에서는 빛의 반사와 투과, 그림자의 변화, 재료의 질감이 공간 경험을 강화하였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Water/Glass Gallery는 구조 표현을 절제하여 비물질성을 강조한 반면,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는 목재 부재의 반복과 결구 방식을 통해 구축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종합하면, 구마 겐고의 뮤지엄 건축은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결합된 공간 조직으로 구현된다. 이는 전통의 형식적 재현이 아니라, 장소와 환경, 인간의 감각 경험, 재료와 구조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면 <표15>와 같다.

[표 15] 사례분석 비교

사례	공간 표현 특성	비판적 지역주의적 해석
Water/Glass Gallery	수면과 유리의 반사투과를 통한 경계의 비물질화	자연환경과 건축의 경계를 약화시키며 장소성을 감각적으로 재구성
Hiroshige Museum of Art	목재 루버에 의한 빛, 그림자, 시선의 중첩	전통 재료와 현대적 외피 시스템을 결합하여 환경 조절과 감각 경험을 통합
Nezu Museum	정원, 처마, 진입 동선을 통한 공간의 점진적 전이	전통적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매개
GC Prostho Museum Research Center	목재 격자의 반복과 결구 방식에 의한 구조적 질서	재료의 분절과 결합을 통해 구축성을 공간 경험의 중심 요소로 전환
Kyushu Geibun Kan Museum	지역 재료와 외부 공간의 연속적 구성	지역 환경과 구조적 표현을 결합하여 장소 맥락적 특성을 형성

<표 15>의 사례분석 종합 비교에 따른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표16>과 같다.

[표 16] 사례분석 종합 비교

구분	공간 표현 특성	비판적 지역주의적 해석
공통점	자연환경, 빛, 재료, 구조가 결합된 공간 구성	장소성·감각성·구축성이 통합된 비판적 지역주의 공간특성 도출
차이점	사례별로 자연, 루버, 정원, 목구조, 지역 재료의 강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남	동일한 이론적 틀 안에서 비판적 지역주의의 다양한 구현 양상을 확인

5. 결론

본 연구는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 이론을 토대로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의 세 가지 범주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구마 겐고의 초기 뮤지엄 건축을 중심으로 그 표현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그의 건축은 장소성을 통해 자연과 맥락 속에서 공간의 기반을 형성하고, 감각성을 통해 빛과 재료를 매개로 공간 경험을 확장하며, 구축성을 통해 구조와 재료의 분절 및 결합을 통해 물질성을 조절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비판적 지역주의를 단순한 지역성의 재현이 아닌, 환경과 감각, 구조가 통합된 건축적 실천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판적 지역주의의 이론적 범주를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건축에서 지역성과 환경이 감각적 경험 및 구조적 표현과 결합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구마 겐고의 뮤지엄 사례 분석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 형성, 빛과 재료를 통한 감각적 경험, 구조와 재료의 분절을 통한 비물질적 공간 형성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그의 건축은 전통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건축적 태도를 통해 비판적 지역주의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천적 함의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판적 지역주의를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건축 설계 과정에서 장소, 감각, 구조를 통합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특히 자연환경과의 관계 설정, 사용자 경험 중심의 공간 구성, 재료와 구조를 통한 공간 표현 등에서 현대 건축 설계의 유효한 방법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건축가의 초기 뮤지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축가와 건축 유형을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비판적 지역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재료 환경 속에서 지역성과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구마 겐고의 뮤지엄 건축은 장소성, 감각성, 구축성이 상호 결합된 구조를 통해 건축을 환경과 관계 맺는 존재로 재정의하며, 비판적 지역주의를 현대 건축에서 실천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체를 넘어, 환경과 인간 경험을 통합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현대 건축 담론에서 지역성과 감각을 재해석하는 하나의 이론적·실천적 방향을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일본이라는 지역 내에 있으며, 건축물의 범주가 뮤지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범주로 사례 분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구마 겐고, 『나의 모든 일』, 서울: 나무생각, 2023.
2. Kuma Kengo, 『Anti-Object』, Architectural Association, 2007.
3. Kuma Kengo, 『Architecture of Defeat』, London: Routledge, 2019.
4. Frampton, Kenneth,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in Hal Foster(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Bay Press, Seattle, 1983.
5. 장용순, 쿠마 겐고와 소우 후지모토의 '약한 건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6), 2014.
6. 김승범 & 김광현,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8), 2011.
7. 민경훈 & 윤재은, 쿠마 겐고 건축의 구조 해석에 방법적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5), 2020.
8. 박다혜 & 이영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2), 2019.
9. 최수민 & 김지은, 쿠마 겐고의 건축 사상으로 본 '자연스러운 건축'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6(1), 2015.
10. 김윤정 & 박찬일, 쿠마 겐고의 역동적 비평성으로서의 건축적 사고구조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2013.
11. 김성철 & 정용현 & 김성욱 & 전유창, '약한 건축'의 개념을 활용한 장소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1), 2021.
12. 구본비, 쿠마 겐고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재료물성의 감각성 표현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3. 노영호,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4. 박미라, 한국건축공간에 나타나는 비판적 지역주의 표현특성 연구 : 안도 타다오 작품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5. 정영석, 장소의 맥락을 통해 구현된 쿠마 겐고 건축의 특징과 장소성 형성과정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6. 최민지, 일본 현대건축의 전통 표현에 관한 연구 : 안도 타다오와 쿠마 겐고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7. 홍세미, 요시오 다니구치 건축공간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8. 이현주,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9. kkaa.co.jp